

엑소 정규 3집 '이그젝트' 쇼케이스



같등 아닌 끈끈한 新고부열전 탄생

SBS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13일 첫 방영

한낱한시에 남편을 잃은 아픔을 공유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시 고부 사이로 만났다. 고부간의 갈등을 다룬 이야기가 넘치는 브라운관에서 13일 방송을 시작하는 SBS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은 기존의 고부와는 조금 다른, 애뜻하고 끈끈한 고부 사이를 그린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가 했으나 불의의 사고로 남편과 시아버지를 동시에 잃은 공현수(하이재 분)는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고 홀로 아이를 키운다.

오래전 우연히 만난 그녀를 잊지 못하던 마도진(차도진)은 현수와 그녀 아이의 울타리가 되어주는데, 그렇게 만난 새 시어머니는 바로 그녀의 행복을 빌며 이민 갔던 전 시어머니 은영애(최명길). 운명의 장난처럼 다시 고부간으로 만난 두 사람은 이번만큼 가족을 지켜내겠노라며 힘을 합친다.

결혼과 출산, 이혼을 겪은 뒤 8년 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한 하이재는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사옥에서 진행된 '당신은 선물' 제작발표회에서 "떨리고 설렌다"며 입을 열었다.

하이재는 "배우로서 정말 탐나는 작품이어서 감독님께 잘할 수 있다고 어필했고 결국 출연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이재와 고부 호흡을 맞추는 최명길은 "누군가의 아내, 엄마 역할을 맡아봤는데 아예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연기하는 건 처음"이라며 "벌써 이런 나이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며 소감을 털어냈다.

현수의 첫사랑이자 첫 남편으로, 바다에서 실종된 것으로 설정된 한윤호 역은 심지호가 맡아 반전을 예고했다.

연출을 맡은 윤류해 PD는 "재미와 감동, 웃음, 눈물, 반전과 스텝까지 갖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드라마를 만들겠다"며 각오를 피력했다.

13일 오후 7시 20분 첫 방송. 120부작.

연합뉴스

“최고의 음악·퍼포먼스로 새 기록 써갑니다”

선주문 66만장... '트리플 밀리언셀러' 세울지 관심

'몬스터' '럭키 원' 상반된 두 곡 더블 타이틀 내세워

그룹 엑소는 '기록의 사나이'로 불린다. 공식 팬클럽 회원수 369만명 돌파, 정규 1집과 2집 더블 밀리언셀러, 연말 가요 시상식 3년 연속 대상, 빌보드 앨범 차트 한국 남자 가수 최고 기록(95위).

9일 정규 3집 '이그젝트'(EX'ACT)를 발매하는 엑소가 막강한 팬덤을 과시하며 새 기록 수립에 사동을 걸었다. 3집 선주문량이 66만180장(한국어 음반 44만2890장, 중국어 음반 21만7290장)으로 엑소 앨범 사상 최대 선주문 기록을 세웠다. '트리플 밀리언셀러'를 달성할지도 큰 관심이다.

"꾸준한 사랑을 받는 게 욕심일 수 있어 기대를 안 했는데 66만장이나 높았고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100만장을 돌파한다면 가문의 영광일 것 같아요. 의욕 잃지 않고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동기가 부여가 됩니다."(수호, 찬)

엑소는 폭발적인 선주문량에 "큰 힘이 된다"고 소감을 밝히며 "모든 기록이 감사하지만 베스트는 많은 팬들이 생겼다는 것"이라고 팬들에게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8일 오전 11시 30분 강남구 삼성동 SM타운 코엑스 아티움에서 열린 정규 3집 쇼케이스에서다.

진행을 맡은 슈퍼주니어의 이득은 엑소에 대해 "엑소에게 이제 가능성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전세계를 대표하는 그룹으로서 새로운 역사와 기록을 세울지 기대된다"고 치켜세웠다.

멤버 찬열은 "역시 엑소란 말을 듣고 싶다"고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1년 만에 정규 앨범을 내 설레면서도 긴장된다는 수호와 찬열은 "괴물 같은 음악을 준비했고 퍼포먼스가 완벽하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앨범에는 히트 작곡가 켄지, 디즈, 런던노이즈, 세계적인 프로듀싱팀 더스테오타입스 등이 참여했으며 일렉트로닉 팝, 프로그레시브 알앤비(R&B) 등 다채로운 장르의 신곡 9곡이 수록됐다.

백현이 "다양해서 골라듣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하자 레이는 "어떤 곡이든 엑소가 해서 더 멋있는 것 같다"고 추임새를 붙였다. 이들은 그중 사운드가 웅장하고 강렬한 '몬스터'와 밝고 경쾌한 '럭키 원'(Lucky One) 등 상반된 매력의 곡을 더블 타이틀곡으로 내세웠다.

수호는 "두 곡의 음악 색깔이 극명하다"며 "엑소를 좋아하는 분 중 음악 성향이 맞지 않는 분들도 있

어 양면성을 가진 곡을 선보였다. 두 곡 모두 좋아서 들려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특히 '몬스터'는 이전곡인 '으랏~', '콜 미 베이비'(Call Me Baby), '러브 미 라이트'(Love Me Right) 등 밝은 분위기의 곡들과 달리 데뷔곡 '마마'(MAMA) 때로 돌아간 느낌이다.

백현은 "마마" 때의 모습을 좋아해 준 분들도 많아 경쾌한 곡들을 세곡 했으니 원래 엑소의 색깔을 보여 주려 했다. 퍼포먼스에 치중할 곡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카이도 "이번 퍼포먼스가 강렬하다"며 "1분 1초도 눈을 땄 수 없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멤버 중 찬열은 피아노 선율과 랩이 어우러진 팝 '헤븐'(Heaven)의 작사에 참여했다.

앨범 공백기 동안 백현, 시우민, 찬 등 멤버들은 각기 컬래버레이션(협업) 음원을 잇달아 선보이기도 했다. 미스에이 수지와 듀엣한 '드림'으로 음원차트 1위를 석권한 백현은 "기대 이상으로 사랑받아 깜짝 놀랐다"며 "여자 가수와의 듀엣은 새롭고 신기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찬도 "자작곡으로 무대에 서는 게 꿈"이라며 음악적인 욕심을 나타냈다.

이번 앨범의 1위 공약으로는 시우민이 "어린 시절 댄스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연합뉴스

김민우 20년만에 신곡 '푸르다' 발표

'사랑일뿐'으로 사랑받은 1990년대 발라드 가수 김민우가 20년 만에 가요계로 돌아왔다.

김민우 측은 8일 "김민우 씨가 1997년 낸 정규 4집 '후애'(後愛) 이후 20년 만에 신곡 '푸르다'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민우는 1990년 정규 1집으로 데뷔해 '사랑일뿐야', '입영열차 안에서', '휴식 같은 친구' 등 한 앨범에서 다수 곡을 히트시키며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그러나 4집 이후 가요계를 떠나 수입 자동차 딜러로 변신했으며 기업 강연을 하고 자동차딜러학과 교수가 됐다. 자신의 인생을 담은 에세이 '나는 희망을 세일즈한다'를 출간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JTBC '두유 프로젝트-슈가맨'을 통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 1990년대를 풍미한 곡들을 들려주며 추억을 선사했다.

신곡 '푸르다'는 싱어송라이터 겸 프로듀서인 예코브트지가 작곡했으며 푸르렀던 과거를 회상하며 세월의 무상함,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한 곡이다.

김민우 측은 "김민우 씨가 오래도록 가슴에 묻어둔 음악에 대한 갈증을 이번 신곡으로 풀어낼 예정"이라며 "TV와 라디오 등 다양한 방송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Table with 4 column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EBS1 programs including 'EBS 생활 영어', '한글여행', '세계사 시간여행', etc.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9일(음 5월 5일 壬戌). A horoscope section with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and corresponding birth dates, providing daily fortune predictions.